

재외동포의

창

2013 12월호

특집 : 4~5

“나의 뿌리... 모국의 역사·문화 배웠다”

21개국서 온 재외동포 유학생 82명 전국투어 체험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 분청자



자유분방하고 대범한 기법이 돋보이는 분청자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자기다. 많은 미술사가 들은 가장 한국적인 미가 무엇이냐고 할 때 “분청자에 해답이 있다”고 말한다.

청자와 백자는 중국에도 있는 것이지만 분청자는 한국에서 만 발견된다. 분청자에서 느껴지는 한국적인 맛은 ‘자유분방하고, 수더분하고, 구수하고, 친진난만하고, 익살스럽고, 대범하게 생략적이고’ 등으로 말할 수 있다.

이 그릇은 15세기에 나타나 약 150년간 지속되다 백자가 유행하면서 자취를 감췄다. 중국에서 유교를 앞세운 명나라 때 유행한 백자는 조선에서는 몇몇 왕실 요에서만 만들었다. 일반 사대부들은 백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당시 유행하던 청자 그릇에 백토를 칠해 분청자를 만들게 된 것이다.

분청자는 문양도 모양새도 자유분방하다. 거꾸로 물고기를 그려 넣은 장군병에서 보듯 해학이 넘친다. 불행하게도 분청자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일본으로 흘러들어간 점이 아쉽다.

2	한국의 얼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 분청차
3	목차	
4	특집	“나의 뿌리... 모국의 역사·문화 배웠다” 21개국서 온 재외동포 유학생 82명 전국투어 체험
6	화제	“꿈에 그리던 모국이 잘살아 가슴 뿌듯” 사할린한인 동포 160명 모국방문, 서울·남도·제주 견학
8	기획	“정책 반영할 우수한 논문 많아 재외동포 연구 부쩍 성숙해졌다” '2013 재외동포재단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및 학위논문상'
10	포커스	차세대 육성과 창조경제 실현에 동참 재외동포재단, 2013년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확충 본격화
14	글로벌코리안	“경제성장에 편승한 동남아 외식열풍 주목했죠” 미얀마 외식업계 선두주자 MYKO 정주아 대표 “fast, smart, beauty 정신으로 성공했죠” 스웨덴 파나고라 패션회사 송문석 대표
16	OKF 뉴스	호주 멜버른 한인회관 준공... 조규형 이사장 축사·간담회 외
18	한민족공감	차대통령 임기첫해 EU순방 정상외교 '글로벌 파트너십' 협력강화 기틀다져
19	우리말 배워봅시다	
20	동포의 창	한국 작가들 '싱가포르 자선미술전' 참여 채혜미 싱가포르 아트저널리스트
21	지구촌 통신원	한국-태국 우호문화축제로 방콕 '술렁'
22	현장의 목소리	유럽 한인 차세대 '우리말 웅변' 겨뤘 제3회 한국어 웅변대회에 36명 참가... 정체성 함양에 도움
23	동포문학	아버님 전상서 박원규(과테말라) 2013 동포문학상 시부문 대상
24	나의 살던 고향	가방 하나 달랑 매고 감성여행 포천
26	재단공지 및 독자후기	



표지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으로 국내에서 공부하는 21개국 82명의 동포 유학생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투어에 나섰다. 러시아, 중국, 일본, 국가연합(CIS), 중남미 등지에서 온 동포 장학생들은 22일부터 2박3일간 청원, 남원, 순창, 인천에서 남도 문화를 탐방하고 상호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발행인: 조규형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헤럴드미디어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CIS), 중남미 등지에서 온 동포 장학생 82명은 11월 23일 공주대 한민족교육원에서 '한복입기 체험'을 하며 전통 예절을 배웠다.

“나의 뿌리... 모국의 역사·문화 배웠다”

21개국서 온 재외동포 유학생 82명 전국투어 체험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으로 국내에서 공부하는 21개국 82명의 동포 유학생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투어에 나섰다.

러시아,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CIS), 중남미 등지에서 온 동포 장학생들은 22일부터 2박3일간 청원, 남원, 순창, 인천에서 남도 문화를 탐방하고 상호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2013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돼 어학연수를 받고 있는 학생에서부터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이뤄진 이들은 충남, 전남에서 전통문화와 남도의 맛을 즐기는 등 고국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었다.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원이 주관한 역사문화 체험에서 학생들은 첫날 한때 대통령의 별장이었던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청남대를 방문해 대통령의 휴양시설을 둘러보았다.

1984년 대청댐 부근에 설립된 청남대는 지난 2003년 개방되어 현재는 청원군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한해 600만 명이 다녀가는 관광명소다. 학생들은 청남대 본관 1층에 마련된 전시실에서 역대 영부인 관련 사진과 영상 등 행정박물 130여 점을 보며 대통령

의 반려자로서 영부인의 활동상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남원으로 이동해 저녁에는 '지역별 네트워크의 밤'에 참여해 유학생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재외동포재단 차세대팀 관계자는 “재단은 초청 장학생이 학업에 열중하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오리엔테이션 등 사전 안내를 하지만 선배 장학생들로부터 얻는 정보가 큰 도움이 된다”며 “지역별 네트워크의 밤을 통해서 선후배간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고, 유학생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학교로 돌아가서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려인 4세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네스체로바 올라(고려대 국제학부 1년) 씨는 “역대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정국 구상을 했다는 별장을 둘러보고 집무실 책상에도 앉아보니 신기하고 뿌듯하다”며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또 오고 싶다”고 소감을 털어놓았다.

중국에서 온 강훈(한국외대 경영학부 3년) 씨는 “학사일정으로 바쁘지만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매년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면서 “책에서 배우기만 했던 춘향의 고장을 둘러

볼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고 즐거워했다.

둘째 날에는 오전에 고대소설 ‘춘향전’을 모티브로 조성된 전라북도 남원의 춘향 테마파크를 견학했다. 1999년 임권택 감독이 제작한 ‘춘향전’의 촬영 세트장을 비롯해 소설의 주요 장면을 재현한 4개의 테마파크를 통해서 당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돌아가면 우리 이민사도 공부해볼 계획”

벨라루스에서 유학 온 고려인 3세 김유리(한국외대 어학연수) 씨는 “IT강국인 한국에서 컴퓨터 언어학을 전공하고 돌아가서 온 오프라인 한국어 학원을 차리는 게 꿈”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씨는 춘향 테마파크를 돌아보며 춘향이 여인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폭압에 굴하지 않은 모습에 “벨라루스 여성이 기가 세고 속내를 감추지 않는 것과 춘향은 대조적”이라며 “한국인이 대표적인 여성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뜻깊다. 한국인의 정서를 엿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후에는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로 이동해 한국의 대표 발효 음식인 고추장을 만들어보고, 만든 고추장을 넣어서 즉석 떡볶이를 해 먹기도 했다.

체험을 마친 후 학생들은 침곡역에서 가정역까지 5.1km를 레일바이크로 이동하며 섬진강변의 빼어난 풍광을 감상하기도 했다.

과테말라에서 유학 와 한국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명노문 학생은 “지난 5년 동안 빠지지 않고 역사문화체험에 참가했다”며 “유학생 간의 교류로 친구도 생기고 고국의 곳곳을 돌아보며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즐거워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공주대로 이동해 숙소에서 친교의 시간을 보내며 둘째 날을 보냈다.

마지막 날에는 경기도 부천의 한국만화박물관과 인천광역시 한

국이민사박물관을 둘러보고 차이나타운에도 들렀다.

만화박물관에서는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부상한 ‘애니메이션’의 세계를 견학했고, 이민사박물관에서는 대한민국의 해외 이민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었다.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소영(브라질) 학생은 “한국 이민의 시작이 인천에서 시작된 사실과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고된 생활을 하며 이민을 개척한 선조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해외 곳곳에 720만 명이 되는 동포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에 자극을 받았다”고 소감을 털어 놓았다.

도미니카에서 유학 온 이휘정(서울대) 학생은 “사탕수수와 애네켄으로 상징되는 미주 이민사를 배우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한인 역사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돌아가면 우리 이민사도 제대로 알아볼 계획”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들른 인천의 차이나타운에서 학생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 동포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는 비교 체험을 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외동포 차세대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이번 체험을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양을 키우고 교류를 통해 유학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재단은 교육사업의 하나로 국내 대학 학사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우수동포 학생을 비롯한 석·박사 과정까지 선발하여 수학기간 등록금 면제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단은 1997년부터 석·박사과정 초청 장학사업을 시행해왔으며 2011년부터는 학사 과정도 지원하고 있다. **장**



22일 저녁 참가자들은 남원으로 이동해 '지역별 네트워크의 밤'에 참여해 유학생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보냈다.



23일 오후에는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로 이동해 한국의 대표 발효 음식인 고추장을 만들어보고 만든 고추장을 넣어서 즉석 떡볶이를 해 먹기도 했다.

“꿈에 그리던 모국이 잘살아 가슴 뿌듯”

사할린한인 동포 160명 모국방문, 서울·남도·제주 견학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사할린동포 모국방문단은 외세에 맞서 정체성을 지키며 발전해온 모국의 뿌리 깊은 역사에 자긍심을 느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주일씩 나눠서 3주간 사할린동포 160명을 대상으로 일시 모국방문을 실시했다. 올해로 25년을 맞은 모국 방문은 그동안 총 216회에 걸쳐 1만 7천 500여 명이 꿈에 그리던 고국 땅을 밟았다.

사할린과 극동러시아 등에서 온 동포들은 1세들이 영구 귀국해 사는 인천 사할린 동포 복지회관과 안산 고향마을, 천안 망향의 동산,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했다.

올해는 남도문화권의 역사체험을 위주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통방식의 온돌방에서 숙박하는 이색 경험도 가졌다. 특별히 한옥 마을에서 아리랑 전문가를 초빙하여 아리랑 함께 부르기 등 우리의 전통문화를 직접 배우고 느껴보는 흥겨운 자리가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들은 공주 무령왕릉과 전주 경기전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제주도 풍광에 “또 오고 싶다” 탄성

예년과 달리 이번 모국 방문에는 전남 완도에서 배를 타고 제주

로 이동하는 등 전국 종주를 통해 모국의 발전상과 생활상을 피부로 직접 느끼기도 했다. 천지연과 쇠소깍, 섭지코지 등을 둘러본 제주도 2박3일간의 일정은 모처럼 느껴보는 특별한 즐거움이기도 했다. 제주에서 가졌던 사할린 동포의 밤 만찬행사는 더없이 즐거운 여행의 진수를 느끼게 해준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했다.

이어서 서울로 돌아온 이들은 민속박물관과 시내관광을 했고 마지막 날에는 친지 방문과 쇼핑 등 자유 시간을 가졌다.

모국방문의 대상자는 사할린과 사할린 이외 지역인 극동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등 5~6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89년 모국방문 첫 사업 때는 사할린동포로서 1945년 이전 출생자인 1세대에 한해 일본에서 지원하였는데 2세 이하들도 고국 방문을 간절히 원해 한일공동사업협정의 일환으로 매년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지원하게 되어 2세들의 모국방문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3차 참가자로 11월 25일 입국한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마음껏

웃고 즐기면서 잊혀진 역사의 한 꺼풀을 벗겨내는 듯 흥가분해진 기분으로 모국의 7박8일 일정을 보내고 12월 2일 사할린, 모스크바 등으로 출국했다.

대한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과의 최소낭 대리는 “모국 방문 일정은 항상 참가자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어서 모국에 오면 먼저 영구 귀국한 1세대들이 거주하는 안산 고향마을이나 인천 사할린 한인복지관 등을 방문한다”며 “조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을 병행하지만 고통의 점을 늘 고려해 무리한 이동을 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할린 한인들의 역사는 일본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5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당시 조선은 물론 사할린 일부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 초기 사할린으로의 이주는 강제 동원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의 토지조사사업 탓에 많은 농민이 자신의 땅을 잃게 됐고, 살길을 찾아 사할린으로 이주 또는 계약노동자로 건너갔다.

이후 일본은 만주 전쟁 등 계속된 전쟁으로 부족해진 물자와 노동력을 채울 목적으로 1938년부터 조선인들을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하기 시작했다.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은 사할린 지역의 탄광과 벌목장, 도로 및 철도 건설 등에 투입돼 노역에 시달렸다.

사할린 지역으로의 강제노역은 대략 15만 명으로 추정되며, 일본으로의 이주 징용도 10만 명 정도로 알려졌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할린에 남은 4만 3천여 명의 조선인들은 일본으로도, 한국으로도 그 어느 곳도 가지 못하고 남겨졌다.

모국방문 사업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징용해 사할린으로 끌고 갔던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은 일본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사업은 양국 적십자사가 대행해 왔다.

모국방문 사업은 해방이 됐지만 고국을 찾을 수 없었던 사할린 동포들에게 고향과 친지를 방문해 향수를 달래주고, 고국의 발전상을 보여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작됐다.

대한적십자사의 관계자는 “모국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란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게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방문자들은 영주귀국자와의 만남을 통해 사할린 동포들이 한국에서 편안함 삶을 영위하는 것에 안심해 했다.

방문단은 천안 방향의 동산과 아산 현충사를 방문해 고난 극복의 한민족 역사를 깊이 느끼며 하루 속히 통일이 이뤄지기를 염원했다. 지방 투어를 마치고 서울을 방문해 시내 곳곳을 돌아본 이들은 “대한민국의 이렇게 잘살고 있는지 몰랐다”며 “한인이라는 사실에 다시금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제주의 빼어난 경관을 둘러본 참가자들은 저녁에 숙소에서 마련된 레크리에이션에 참가해 서로간의 우의를 다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발전된 조국상에 한인 자긍심 느껴

모국방문단은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전통가옥을 살펴보고 맛의 고장인 전주의 한식을 맛보기도 했다. 제주에서는 저녁에 호텔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하며 참가자들 간의 우정을 다지기도 했다.

제주도를 처음 방문했다는 사할린에서 온 오철호(78) 씨는 “제주도 만찬 행사에서 실컷 웃으면서 여행의 노고도 풀고 고국의 푸근한 정도 느꼈다”며 “이런 기회를 제공해준 적십자사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고마워했다.

사할린에서 온 김인순(79) 씨는 “전주 한옥마을의 온돌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추억은 예전 부모님의 향수를 느낄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다”며 “이전에도 참가했지만 이번에는 전국 곳곳을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거주하는 김철주(65) 씨는 “제주도에서 생일을 맞은 조복군 씨를 위해서 짝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어서 감동을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제주도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벌써부터 또 오고 싶어진다”고 전했다.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인 아내와 함께 참가한 한선태(70) 씨는 “20년만의 방문이라 모국의 발전상에 놀랐고 변함없는 인정에 감격했다”며 “아내에게도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여줄 수 있어서 기억에 남을 특별한 여행이 됐다”고 감사해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배수남(63) 씨는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방문해 사할린 한인 경로당에서 영구 귀국한 1세 분들을 만났다”며 “꿈에 그리던 모국에 정착을 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사할린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을 느꼈다”며 더 많은 왕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정책 반영할 우수한 논문 많아 재외동포 연구 부쩍 성숙해졌다”

‘2013 재외동포재단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및 학위논문상’ 시상·발표



재외동포재단은 1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2013 재외동포재단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및 학위논문상’ 시상식과 입상 논문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우수논문을 수상한 김명지(전남대) 씨의 논문 발표 모습이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1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2013 재외동포재단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및 학위논문상’ 시상식과 입상 논문 발표회를 개최했다.

재단은 지난 8월 재외동포와 관련된 자유 주제의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을 공모했고 지난달 수상작 7편을 발표한 바 있다.

김봉섭 팀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 행사는 재단 관계자, 수상자, 학계 인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심사위원장으로 이규영 교수(서강대)와 김태기 교수(호남대)가 참여했다. 시상식은 학위논문상과 논문공모전으로 나뉘었다. 학위논문상은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학위 논문에서 선정됐고, 논문공모전은 대학(원)생들이 자유주제로 재단에 기고한 논문에서 채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학위논문상 심사위원장인 이규영 서강대 교수, 논문공모전 심사위원장인 김태기 호남대 교수가 심사 보고를 한 뒤 각 부문 수상자들이 상장과 학술장려금을 받았다.

이 교수는 학위논문 심사보고에서 “19편의 응모작을 논문의 완성도와 정부 재외동포 사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시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며 “지난해보다 참여도 늘었고 논문의 질적 향

상이 돋보였고, 일부 논문은 재단 사업에 바로 적용할 만한 성과를 선보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연구방법이 다양해지고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논문들이 나와 재외동포연구가 성숙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며 “더 많은 이들이 논문을 응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국어 논문상·특별상 등을 두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논문공모전을 심사한 김 교수는 “비 전문가들이 재외동포 분야에 관심을 두고 논문 작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기본적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참신한 아이디어에 비해서 논문의 보편성을 유지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수상자 19명 중 15명은 시상식에 참석했고, 국외거주자는 현지 공관에서 상장이 수여됐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우수논문상 박사 200만 원, 우수논문상 석사 150만 원, 장려상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또한 논문공모전은 우수상 3팀과 장려상 4팀이 선정됐다. 각각 상장과 우수상 150만 원, 장려상 1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논문공모전 우수상에는 전남대 대학원 디아스포라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김나경·이소영 씨의 ‘고려인 마을의 공간 형성과 공동체 연구’, 충북대 대학원 박사과정 김인숙 씨의 ‘중남미 한글학교 지원체제 구축 연구’, 한국외대 영어통번역학과·포르투갈어과 학사과정 한지영·안예원 씨의 ‘내국인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연구: 국내 체류 조선족, 고려인 청년유학생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등 3편이 선정됐다.

텍사스대 교원양성 박사과정 김선영 씨의 ‘재미 한인 학부모들의 경험 연구: 자녀의 미국 공립교육 상황에서 직면하는 불안, 고

립, 그리고 갈등' 등 4편은 장려상에 뽑혔다.

학위 논문 공모전에는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감과 행동 양식: 장소심리학적 접근' (오인혜 · 서울대) 등 7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우수논문상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미술의 의의와 정체성 연구' (김명지 · 전남대), '연합군총사령부의 해외한인귀환 정책 연구' (황선익 · 국민대) 등 5편, 장려상 '축제를 통한 재일코리안의 통합적 문화운동에 관한 연구: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김희정 · 예원예술대) 등 2편이다.

시상식후 수상자들 연구결과 발표회

시상식 이후 수상자들은 직접 나와 자신의 논문 주제와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발표회를 했다.

김명지(전남대) 씨는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미술의 의의와 정체성 연구' 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재일동포 송영옥 화가의 '사람과 세 개의 마스크' 작품을 소개했다.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게 된 김 씨는 발표에서 "재일코리안 미술을 한국 미술사에 편입시켜서 한국미술사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선익(국민대) 씨는 '연합군총사령부의 해외한인 귀환정책 연구' 논문 발표에서 "2차 세계대전의 완전한 종결은 독립국 지위 회복과 영토 확정, 한인 사회의 복원"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족 출신인 박춘설(서울대) 씨는 '중국 조선족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학생들이 배우는 언어와 한국어와 어휘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한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면 한국어 어휘와의 차이를 대조해서 언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목록을 정리하는 작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조선족과 고려인 청년 유학생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국인의 재외동포 인식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한지영 · 안예원(한국외대) 학생의 논문도 돋보였다. 그렇지만, 심사위원은 토론 발표 후 30명의 적은 표본조사만으로 보편성을 이끌어내는 데 무리가 있었다며 좀 더 광범위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남미 한글학교 지원체제 구축 연구' 를 발표한 김인숙(충북대) 씨는 "중남미에서 한국어 교육원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한글학교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서 논문 주제로 선택했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중남미 한국어 교육단체와 국내의 지원기관 및 연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논문 발표에 대한 평가에서 "재일동포의 미술사를 통한 의식연구 접근은 참신했다"며 "차별의식을 비롯한 다양한 사



논문공모전에서 수상한 입상자들과 재외동포재단 관계자 및 심사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신설한 대학(원) 학위논문상을 수상한 입상자와 관계자들.

례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구성진 씨는 "논문 공모전 입상작에 재일동포 비중이 높는데 다른 지역 동포에 대한 관심도 앞으로 늘어나길 바란다"며 "영어 논문 응모가 없는 점이 아쉬운데 더 많이 홍보를 해서 한국어가 서툰 2~3세를 비롯해 외국인 연구자의 응모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상식과 토론회에 참가한 김희정 씨는 "재외동포 관련 다른 분야의 연구 성과를 들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논문을 쓰는 것에 대한 조언도 듣고 시야도 넓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규형 이사장은 "이번 논문 공모에 담긴 소중한 의견과 현지 실태보고는 국민행복 시대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재외동포지원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학위논문상과 대학생 논문공모전이 재외동포사회의 변화·발전상과 미래지향적 역할을 탐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과 객관적 이론 정립의 창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위논문상과 논문공모전 수상작 전문은 코리아넷(www.korean.net)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차후 논문집으로 출판돼 배포될 예정이다. **장**



차세대 육성과 창조경제 실현에 동참

재외동포재단, 2013년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확충 본격화

재외동포재단은 2013년 한 해 동안 재외동포들의 힘을 결집해 고국의 창조경제 실현에 적극 협력하고, 차세대들에 한국어와 한국전통문화를 알려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글로벌코리안 네트워크' 확충에 힘써 '코리안넷'을 동포사회의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 '한상 네트워크' 활성화에 앞장서 국내외에 동포사회의 역량을 널리 알렸다.

올해 재외동포재단 사업은 '차세대'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는 향후 어디에 무게 중심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다. 한글교사를 위한 사이버 연수와 장학사업, 한인차세대대회,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한국어 국제 교육학술대회, 스터디 코리안 성인용 한국어 공부방 콘텐츠 개발, 러시아 동포 직업연수, 재일

민단 청년회 모국 연수 등의 행사를 통해 재단은 차세대의 한민족에게 미래를 걸고 있다.

물론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1세대들을 위한 사업도 펼쳐 그들의 노고를 위무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 행사에서조차도 차세대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서 국내에 재외동포 인식의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으로 확대해 교양과목 개설을 지원했다. 고등학교와 대학 강좌에서는 재단 임직원이 강사로 나서서 동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재단의 역할을 널리 알렸다.



‘소통과 화합’ 강조한 세계한인회장대회

동포사회의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온 세계한인회장대회는 6월 18일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73개국에서 380여 명이 참석해 한인회 간의 교류와 성공사례 공유를 통해 ‘글로벌코리아’ 구현에 한인 네트워크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인식시켰다.

서울 광진구 웨라톤위커텔 호텔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여야 국회의원, 조태열 외교부 차관 등 약 5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각 재외동포 사회가 고국 발전에 이바지한 역할을 치하한 뒤 “동포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조국 사랑이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도약시키는 데 큰 발판이 됐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한인회장들은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에 재외동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전 세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훌륭한 한인 인재들이 있는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경제에 융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모국과 동포사회가

- 1 6월 18일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73개국에서 380여 명이 참석한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외동포 사회가 고국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치하했다.
- 2 올해 16번째로 열린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는 청소년과 대학생으로 나뉘서 1천100명이 참석해 차세대 네트워크 산실로 떠올랐다.
- 3 재외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상호 교류를 통해 노하우를 익히는 자리를 마련해온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가 7월 31일부터 7박8일간 서울과 광주·안산에서 풍성하게 열렸다.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인회장들은 서울 광진구 웨라톤 위커텔 호텔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창조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모국 청년들의 해외 진출·취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 등 4개항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우수 재외동포 인재들이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상생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확대 ▲재외선거제도 개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추진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등 재외동포 관련 각종 법률의 정비를 요청했다.

동포사회 구심점으로 부상하는 ‘코리아넷’

21세기는 정교한 네트워크를 가진 자가 경쟁력을 갖고 생존하게 될 것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고,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3년간 한국 정부는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GKN)’ 구축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한 재외동포재단은 그동안 재외동포들과의 온라인 소통의 장이었던 재단 운영의 ‘코리아넷’(www.korean.net)에 모든 정보와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해 언제, 어디서건, 누구나 쉽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다양한 쌍방향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동포 사회의 ‘코리아넷’ 접속도 늘어 이제는 명실공히 동포사회 정보와 소통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재외동포 인물과 단체 정보를 로그인만 하면 누구나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재단은 코리아넷에 담겨있는 각종 정보들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서비스하겠다는 전략이다.

좀 더 깊숙히 개편된 사이트를 들여다보면, 동포 단체의 홈페이지를 지역별,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은 물론 개별 단체의 공지사항이나 활동사항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갖춰놓았다.

한편 달라진 코리아넷에서는 현재 기관 간, 단체 간, 개인 간 네

【 포커스 】

트위크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 한인회와 한인상공인회, 국제결혼여성, 해외입양인, 한국학을 통한 친한파들, 한인 대학생, 각국 유학생, 한인여성회 등 직능별, 단체별 네트워크도 이뤄지고 있어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차세대 네트워크로 자리잡은 '청소년 모국연수'

올해 16번째로 열린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는 매년 세계 각국의 한인 청소년을 초청해 한국의 역사·문화 등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이 앞으로 글로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로 1차 중고생 연수에는 국내외 학생 800여 명이 참석했다. 2차 연수에는 세계 27개국에서 한인 대학생 306 명이 참가했다. 제주도에서는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를 위해 제주 대학생 30명도 함께했다.

재외동포재단이 동포 차세대들의 '한민족 정체성 심어주기'를 위해 실시하는 '2013 재외동포 청소년 1차 초청연수'가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1차 연수에는 세계 53개국에서 한인 청소년(중·고등학생) 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연수에는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를 위해 국내 청소년 300여 명도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단순 강의 청취, 관광 차원의 연수에서 벗어나 도시와 농촌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모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또, 과학기술과 창조산업 융합 현장을 견학 및 체험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의미를 생각해보기도 했다.

1차 연수는 전국 9개 주요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중고생 참가자들은 춘천, 속초, 안동, 구미, 전주, 대전, 진주, 군산, 울산 9개 지역 마을로 나누어져 일일학교·민박 체험 및 창조경제 미래과학 현장체험을 했다. 또, 국내 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2차 연수 대학생 참가자들은 서울에서 개회식을 마치고, 배편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 제주도의 역사문화 탐방 등을 펼쳤다. 제주에서는 우근민 제주도지사로부터 직접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참가자들은 거주국으로 돌아가 평화와 관광의 섬 제주를 널리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또, 광주로 이동해 남도문화를 체험하고, 무등야구장에서 프로야구를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다.

31일에 참가자들은 서울과 인천에서 6개 코스로 나뉘어 도시탐험 활동을 펼쳤다. 주어진 장소를 찾아가서 과제를 수행하는 그룹별 역사체험교육 활동으로 이들은 서울에서는 한옥마을과 궁궐,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과의 온라인 소통의 장이었던 '코리아넷'(www.korean.net)에 모든 정보와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남대문 시장을 둘러보았고, 인천에서는 월미도와 인천상륙작전이 펼쳐졌던 한국전쟁의 장소를 둘러보기도 했다.

한글 교육 역량 강화한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해외에서 동포 자녀 및 현지인들에 대한 한글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재외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상호 교류를 통해 노하우를 익히는 자리를 마련해온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가 올해도 풍성하게 열렸다.

교사들은 경주에서 찬란한 문화 유적 답사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했고, 학교 경영과 리더십, 우수 강의 시연 및 운영사례 발표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

재외동포재단은 7월 31일부터 7박 8일간 59개국 한글학교 교사 196명을 대상으로 재외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를 펼쳤다.

이번 연수는 이날부터 8일간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The·K 경주호텔에서 진행됐다. 연수 대상자는 유럽 30명, 독립국가연합(CIS) 9명, 북미 68명, 중남미 16명, 아시아 43명, 대양주 14명, 아프리카·중동 16명 등 59개국 한글학교 교사 196명이다.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연수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역사박물관을 관람했으며 개회식을 마친 뒤 승례문을 견학하고 경주로 이동했다.

연수 기간에 참가자들은 국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강사진의 학년별 교수법 강의, 우수 강의 시연, 한국어 교수법 문화·예술 매개 강의 등의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이외에도 지역협의회 운영 우수 사례 발표 및 토의, 학교·가정과 독도 관련 특강, '한국의 역사와 인물' 강의 등의 프로그램과



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장인 '세계한상대회'가 10월 29일부터 3일간 광주에서 열려 역대 최대 성과를 올리며 국내외 주목을 받았다.

경주 불국사·석굴암 등지를 답사하는 역사·문화 체험 시간도 이어졌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수료식에서 “교사 여러분의 열정과 봉사 덕분에 차세대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동포사회와 모국 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치하하고 “정부 예산 삭감 분위기 속에서도 한글학교를 지원하는 교육 예산은 한 푼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초청연수기간에 세계 지역별 한글학교협의회 대표자 협의체인 세계한글학교협의회회의의 3대 회장으로 남도우(48) 중남미 한글학교 협의회장이 뽑혔다.

동포사회 존재감 알린 '세계한인의 날·세계한인차세대대회'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2007년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올해로 7회를 맞았다. 내국인에게 재외동포는 '국력의 외연'임을 알려준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올해에는 '2013 코리안페스티벌, 재외동포사진전 및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국내외 이목을 집중시켰다.

10월 5일 외교부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해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김성곤 민주당 의원, 201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등 각 계각층에서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재외동포사회의 권익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자 명단에 오른 97명(단체 포함)에게 훈포장이 수여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세계한인의 날을 통해 서로의 정을 나누는 화합과 우정의 한인공동체가 결집되는 계기가 마련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5일 저녁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아리랑으로 다시 만난 한민족'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코리안페스티벌에서는 한국의 3대 아리랑인 진도, 밀양, 정선 아리랑을 비롯해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미국 등지에서 재외동포들이 불러온 특색 있는 아리랑을 선보였다.

재단은 올해 제7회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처음으로 개최한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의 대상 수상작으로 지난 8월 16일 미국 LA 광복절 행사에서 태극기 너머로 사물놀이패가 공연하는 모습을 담은 재미동포 김지민 씨의 사진작품 '광복절 행사'를 선정했다. 아울러 우수상과 입선작을 9월 30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보도에서 전시회를 열어 동포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창조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네트워크'

국내외 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마당으로 불리는 '제12차 세계한상대회'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0월 29일부터 3일간 '한상(韓商) 네트워크'의 힘을 과시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이번 대회는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이 해외 비즈니스 진출의 계기가 되었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한상과 국내 경제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상대회는 '창조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 네트워크'란 슬로건 아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민족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열리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장(場)이다.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 등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해외 44개국 1천200여 명의 한상과 전남·광주 지역을 비롯한 국내 2천여 명의 기업이 참가했다.

광주시와는 한상대회에 참가한 11개국 24개사와 총 3억9천50만 달러의 투자 및 수출협약을 체결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

기업전시회에서 이뤄진 상담 실적은 3천844건에 4천775만 달러로 집계됐고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은 1천331건에 5천35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지난 2010년 제9차 대구·경북 대회에서 3천만 달러 규모, 2011년 제10차 부산대회와 2012년 제11차 서울대회에서는 투자 및 수출협약을 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의 이번 투자·수출협약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상**

“경제성장에 편승한 동남아 외식열풍 주목했죠”

미얀마 외식업계 선두주자 MYKO 정주아 대표



문베이크리는 양곤과 만달레이 레비도 등에 18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각 매장에 매일 신선한 빵을 공급하기 위해 빵 공장만 3개고 직원도 1천 명에 이른다. 문베이크리는 현재 미얀마 외식업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문베이크리의 성공으로 사업에 자신감을 얻은 그는 한국 토종 외식 기업의 도입을 추진했다. 2008년 롯데의 미얀마 시장 조사를 도와준 인연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불모지나 다름없는 곳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미국 패스트푸드 업계는 아직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아 미얀마 진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진출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얀마 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정 사장은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한 후에 장기적인 전략으로 미얀마에 진출해야 한다”며 “시장이 개방됐다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성급히 진출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햄버거 세트 가격은 우리 돈 3천500원인데 미얀마의 최저임금이 월 평균 7만원이다. 서민들은 햄버거 하나 사먹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성공을 낙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미얀마는 불교국가의 영향으로 행복지수도 높고 외식 등 잘 먹는 것을 중시하는 풍토”라며 “중산층을 타깃으로 잡았는데 점차 소비층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미얀마가 최근 군정에서 민정으로 바뀐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정부가 자동차, 전화기 시장을 개방했지만 비싸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지만 가장 원초적인 욕구는 먹는 것이라서 대중이 제일 먼저 반길 것으로 판단한 것이 주효했다.

정 대표는 미얀마에서 번 것은 미얀마에 돌려준다는 나눔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고아원을 후원하고 있으며, 아직 의료보험을 도입하지 않았기에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이 아파도 의료비를 지원해준다.

“미얀마에서는 존경하는 사람을 부를 때 세야마(선생님)라고 부릅니다. 저는 회사에서 보스가 아니라 세야마로 불리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직원을 돌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도 생활이 나아지면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도 이곳에선 고급음식이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여성 한상이 미얀마에서 토종 프랜차이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정주아 MYKO 사장(43)이 주인공이다. 정 사장은 지난 4월과 9월 미얀마 제1의 도시 양곤에 롯데리아 1·2호점을 연 데 이어 최근 3호점을 오픈했다.

제12차 한상대회에 참석한 정 대표는 “양곤 시내에 위치한 쇼핑몰 정선스퀘어에 200석 규모로 1호점을 열었다”며 “국내 메뉴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현지인들이 아주 좋아해 벌써 일일 매출 1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상기된 표정으로 놀라워했다.

정 사장은 화교인 남편을 따라 1998년에 미얀마에 정착했다. 남편을 도와 봉제회사를 운영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성장이 멈추자 내수 사업에 눈을 돌려 2004년 제과점 사업에 진출했다. MYKO에서 처음 출시한 ‘문베이크리’는 제과만이 아니라 밥과 음료도 파는 레스토랑이다.

“fast, smart, beauty 정신으로 성공했죠”

스웨덴 파나고라 패션회사 송문석 대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시장의 트렌드에 빠르게(fast) 대처하고, 다양한 수요를 고루 충족하는 상품(smart), 그리고 삶이 아름답도록(beauty) 돕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12차 세계한상대회에 영비즈니스리더로 참가한 송문석(38) 스웨덴 파나고라 패션회사 대표는 2005년 패션과 뷰티 관련 온라인 스텝을 제작,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연매출 5천만유로(750억원)를 올리는 굴지의 사업가다. 송 대표는 지난 10월 초에 열린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도 참석했다.

스웨덴은 인구 940만 명으로 이 가운데 한인은 1천500여 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2010년에는 스웨덴 최대 일간지인 다겐스나 이헤터와 경제주간지 백간스아파라가 파나고라를 수익성 있고 급성장하는 300대 기업에 선정하고 유망 인터넷벤처 사업가로 그를 소개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01년 첫 사업은 본인이 좋아하던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희소 운동화 모델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었다. 당시 닷컴 버블이 꺼진 시점이라 주변인들은 그를 보고 멍청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전 세계로 팔아 돈을 벌어들였다. 심지어 한국을 가보지도 않고도 2002년 신발을 팔았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웹사이트에 컨설팅 하는 일만 4년간 했다.

송 대표는 “단순하면서도 빠르고, 재미있으면서도 쉬운 개념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더니 반응이 뜨거웠다”며 “전자상거래에 집중하기로 결심하고,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에 특화된 파나고라를 창업했다”고 말했다.

파나고라의 사업 분야는 패션과 미용 부문 회사들의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해주고, 전략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것. 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장사를 한다고 보면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해 주는 송 사장의 사업 영역은 기업간 거래(B2B) 분야다. 온라인과 모바일에 상점을 만들어 주는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자 역할이다.

현재 파나고라의 고객들은 패션과 미용 분야 기업 40여 개 사다. 이 중 일부는 라이벌 관계의 기업이다. 그러나 ‘파나고라와 함께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객사에 주면서 이들은 모두



파나고라를 선택했다.

그는 와이레드(Whyred) 등 스웨덴 패션 브랜드의 한국 진출을 컨설팅하거나 일부 스웨덴 브랜드의 한국 유통 사업도 맡고 있다.

송 대표는 “H&M 등 글로벌 패션업체가 ‘패션 사관학교’ 역할을 하면서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의 독창적 디자인이 스웨덴 패션의 경쟁력으로 떠올랐다”며 “앞으로 소비자 욕구가 다양해지면 한국의 경직된 패션 유통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즈니스는 남이 하지 않는 독창적인 것에 도전할 때 큰 성공을 거둔다”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깊은 물에서도 고기 잡는 연습을 해야 크고 싱싱한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한상대회와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계기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얻게 돼 기쁘다며 그는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한인 청년과의 교류가 자극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즐거워했다. **[장]**

호주 멜버른 한인회관 준공... 조규형 이사장 축사·간담회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1월 23일 호주 멜버른 한인회관 개관식에 참석해 한인사회 오랜 숙원이었던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을 축하했다(좌).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1월 25일 호주 시드니에서 차세대단체인 KAY-Leader와 간담회 열어 차세대의 고민과 활약 등 현안을 파악했다(우).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1월 23일부터 사흘간 호주를 방문했다. 조 이사장은 23일 빅토리아주 멜번 한인회관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24일에는 시드니에서 한글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글학교 운영 현황 등을 파악했다.

25일에는 시드니 한인회관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단체 및 재외동포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동포사회 현안을 파악했다. 이어 조 이사장은 공관 관계자 면담을 통해 동 지역 동포사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한 후 25일 귀국했다.

세계한인언론인대회, 각국서 60여 명 참가

각국에서 우리말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모국에 모여 한민족 네트워크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장(場)인 추계 세계한인언론인대회가 1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연합뉴스 신사옥 17층 다목적홀에서 막을 올렸다.

사단법인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세계한언·회장 이승봉)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지구촌 행복 시대와 한민족 네트워크’라는 주제 아래 이날부터 닷새 동안 서울, 경기도 양평·여주, 강원도 원주 등지에서 열렸다.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네팔 등 17개국에서 60여 명의 언론인이 참가했다.

첫날 이승봉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인 언론인들은 700여만 재외동포의 눈과 귀가 돼 주며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언론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자랑스러운 재외국민으로, 애국자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격려했다.

한인 언론인들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의 레지던스호텔 바비엡에서 ‘국내 언론인과 해외 언론인과의 만남의 장’을 마



세계한인언론인대회에 참가한 언론인들이 6일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 만찬에 참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련, 동포 언론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연 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의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에서 조규형 이사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사회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인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한인 언론이 맡고 있다”며 “재외동포재단도 한인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에서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7~8일에는 원주에 있는 참존화장품 공장을 돌아보고 양평 팜투어와 신록사 템플스테이를 끝으로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재일민단 고국서 통일교육 연수

재일동포 지역 사회의 중심점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회원들이 11월 26일부터 4일간 서울 수유리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 연수를 받았다. 민단 각 지부와 청년회, 부인회, 체육회 등에서 참가한 75명의 참가자들은 한반도 정세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27일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 만찬은 통일교육원 후생관 2층 식당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만찬에 앞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한 안내와 건의가 이어졌다.

조 이사장은 만찬에 앞서 축사에서 “차별에도 굴하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준 재일동포는 모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격려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1월 27일 만찬을 열어 통일교육에 참가한 민단 회원들을 격려했다.

제7회 뉴질랜드 한글학교 교사연수 성료



뉴질랜드 한인학교협의회가 제 7회 뉴질랜드 한글학교 교사연수가 최근 오클랜드 앨버니파크호텔에서 '변화속에 발전을 이끄는 한국어 교육의 현장, 뉴질랜드'란 주제로 열렸다.

뉴질랜드 한인학교협의회(회장 김종연) 주관한 제7회 뉴질랜드 한글학교 교사연수가 10월 11~12일 양일간 오클랜드 앨버니파크호텔에서 '변화 속에 발전을 이끄는 한국어 교육의 현장, 뉴질랜드'란 주제로 열렸다.

이번 연수에는 박용규 뉴질랜드 대사가 웰링턴에서 참석해 멋진 만찬과 함께 교사들을 격려했으며, 박일호 오클랜드 총영사, 배동인 한국교육원장, 이병인 민주평통협의회장, 김성혁 오클랜드 한인회장, 유승재 한민족 한글학교 이사회 의장, 이영선 재외동포재단 기획실 차장, 그리고 통일교육원에서 공태영 서기관과 설수현 주무관이 참석해 연수를 빛냈다.

강사로는 한국어 강의에 재외동포재단에서 파견한 김태철 선생, 한국사 강의에 박상열 선생, 통일 교육에 조철호 통일교육원 교수가 수고했다. 또한 교사연수에서는 97명의 한글학

교 교사들과 축하 손님 등 모두 110여 명이 신명나는 한마당 큰 잔치를 펼쳤다.

개회식에 이어 김태철 한국어 강사의 말하기 수업, 재미와 감동이 있는 시 수업, 오감으로 다가가는 독서수업 방법 등의 강의가 이틀 동안 8그룹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과 함께 진행됐다.

커다란 전지에 교사들이 의견을 직접 써서 발표하고, 게임을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것을 재미있게 이해하는 한국어 수업, 또 직접 쓴 시를 낭송하며 시인이 되어본 시간들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됐으며, 다양한 한국어 교수법 습득의 충분한 동기부여가 됐다.

교사를 먼저 일깨우는 역사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광상열 역사 교사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점수에 연연하지 않는 뉴질랜드의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열강을 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통일교육에서는 '남북 관계 현황과 통일 대북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통일 교육원 조철호 교수가 강의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 시간에는 안전 교육에 관한 특별 강좌가 전개되어 안전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폐회식에 앞서 열린 2013년 교사 장기자랑 우승은 지난해와 같이 크라이스트처치 한국학교로 돌아갔다.

새로운 회장단으로는, 회장에 주의식 크라이스트 한국학교장, 부회장에 최명희 오클랜드 한국학교장, 총무에 김선민 웰링턴 한글학교장, 감사에 계춘숙 자문위원이 추대되어 2014년도를 이끌어갈 일꾼으로 선정되었다. **창**

박대통령 임기첫해 EU순방 정상외교 ‘글로벌 파트너십’ 협력강화 기틀다져



영국을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5일 오후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에서 열린 '영국 의원들과의 대화'에서 '미래 비전 나누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자'의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6박8일간의 서유럽 순방을 마치고 11월 8일 귀국했다. 유럽 지역으로는 처음인 이번 순방에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금융부문에 대한 협력을 양대 축으로 해 유럽연합(EU) 국가들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서유럽 순방을 끝으로 취임 첫해 핵심 권역에 대한 정상외교를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외교·안보·경제 부문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청와대는 평가했다.

이번 서유럽 순방에서 박 대통령이 방점을 둔 분야는 창조경제와 금융 부문에서 서유럽 선진국들과의 협력 강화다.

프랑스의 경우,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신성장동력을 함께 창출하기로 하고 친환경 자동차와 항공, 농식품, IT, 제약, 생명과학, 로봇,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프랑스 수출입은행과 프랑스 개발금융기관, 무역보험공사와 프랑스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과 프랑스 글로벌 석유 메이저인 토탈(TOTAL)사 간 상호 금융지원 등을 위한 4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영국의 경우, 양국 과학기술을 이끌어 온 카이스트와 임페리얼 대학,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맡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영국 정

보공개연구소(ODI)가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벨기에와는 양국이 강점을 가진 화학과 의약, 물류, ICT 분야 등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협정체결 및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신설협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솔베이 등 EU 역내 5개 일류기업들이 총 3억7천만 달러(3천933억 원)의 투자유치식이 열렸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와 원자력 분야에 있어 '핵 폐기물 관리' 등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올해 중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정부 간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영국과는 원전 프로젝트 및 에너지기술 등과 관련한 7개의 양해각서 체결에도 합의했다.

우리나라 산업부와 영국의 에너지기후변화부가 영국과 한국, 제3국에서 상업적 원전사업 진출에 양국 기업들의 사업기회를 갖도록 서로 협력하는 내용의 '포괄적 원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매년 '원전산업 대화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국빈방문지인 영국에서 '화려함과 격식'으로 유명한 영국 왕실로부터 '예우'를 받음으로써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청와대는 1년에 두 차례만 이뤄지는 영국 왕실의 국빈초청을 계기로 글로벌 외교무대에서 박 대통령의 위상이 높아졌을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공식 방문한 프랑스에서는 39년 전 프랑스 유학 이후 독학으로 실력을 쌓아온 프랑스어로 한·프랑스 경제인 간담회에서 20분간 기조연설을 해 화제를 모았다.

또 유학 당시 자신에게 각별한 신경을 써준 이제르주 도지사의 부인을 만나 추억담을 나누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올 2월 취임 이후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 G20(주요 20개국), 러시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세안(ASEAN)에 이어 EU를 끝으로 취임 첫해 전 세계 핵심 권역에 대한 양자 및 다자 정상외교를 마쳤다. **[장]**

우리말 배워 봅시다!

쇼부는 흥정과 결판

“그 친구, 애기가 잘 안 통하는 것 같던데, 이제 자네가 나서서 쇼부를 봐야겠어.”

어떤 일의 결판을 내거나 결판을 내기 위한 흥정을 붙여야 할 때 ‘쇼부를 본다’고 말할 때가 많다. 그런데 이 ‘쇼부’라는 말은 ‘승부(勝負)’라는 말의 일본식 발음이다. 요즘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 중년층이나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층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고, 또 날이 갈수록 쓰이는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을 우리 식 표현으로 바꾸면 상황에 따라서 ‘흥정’이나 ‘결판’ 또는 ‘승부’로 고쳐서 쓸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도 ‘이젠 자네가 나서서 쇼부를 봐야겠어’ 보다는 ‘이젠 자네가 나서서 결판을 내야겠어’ 또는 ‘승부를 봐야겠어’로 바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택시를 탈 때는 기사와 미리 쇼부를 보고 타야 돼요’와 같은 경우에도 택시를 타기 전에 운전기사와 택시 요금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는 ‘미리 흥정을 하고 타야 돼요’로 고쳐 말하는 것이 좋다.

선택사양은 선택사항

요즘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광고나 집으로 들어오는 광고지들을 보면 ‘선택사양’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곤 한다. 자동차의 경우를 보면 ‘에어컨’이나 ‘에어백’ 등과 같은 것은 ‘선택사양’이라고 적혀 있고, 아파트의 경우 ‘벽지’나 부엌시설 같은 것을 ‘선택사양’이라고 적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문품의 경우에 선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품목을 가리킬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인 이 ‘사양’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일까?

이것은 우리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일본에서 만들어 쓰는 한자어인 ‘시요’를 우리식 발음으로 ‘사양’이라고 읽는 것에 불과한 말이다. 그리고 ‘옵션(option)’이라는 말도 같은 뜻으로 사양하는 영어 표현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주문품의 내용이나 모형을 제시한 것이라면 그냥 우리말 표현대로 ‘선택내용’이라든가 ‘선택사항’이라고 하면 된다. 그리고 복잡한 설계 그림이나 내용을 적은 것이라면, ‘사양서’라는 일본식 한자어 대신에 ‘설명서’ 또는 ‘내용서’라고 쓰는 될 것이다.

수순은 절차

신문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 그 처리 과정을 놓고,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보 사태에 관한 수사 과정이 정해진 수순을 밟고 제대로 처리된 것인가’라는 기사를 볼 때, 이 ‘수순’이라는 말이 우리말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신문기사나 뉴스 방송 같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자주 들어오던 표현이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우리말 표현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일본어에서 온 한자어다. 이 말을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면 ‘절차’ 또는 ‘차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과정이 정해진 수순을 밟고 제대로 처리된 것인가’가 아니라 ‘정해진 절차’ 또는 ‘정해진 차례를 밟고 제대로 처리된 것인가’와 같이 고쳐 말해야 올바른 우리말식 표현이 된다.

우리말에는 비슷한 뜻을 가지면서도 그 쓰임새는 사뭇 다른 경우가 많다. 또 뜻으로는 맞게 쓰인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관계의 말이어서 피해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 자주 사용하면서도 뜻을 잘못 알고 쓰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어휘를 선택하는 예를 들어 올바른 한국어 사용법을 알아본다. (자료제공 : 한국방송출판 ‘바른말 고운말’)

한국 작가들 ‘싱가포르 자선미술전’ 참여

채혜미(싱가포르 아트저널리스트)

‘자녀교육에 열성적이고, 골프를 즐기는 코리안 그리고 패션 감각이 뛰어난 멋쟁이 코리안’ 이러한 이미지는 싱가포르 현지인들에게 비추어지는 요즘의 한국인의 모습이다. 거기에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었던 것은 ‘정이 많고 이웃돕기 잘하는 코리안’이라는 이미지였다. 그래서 매년 성탄 계절에 시도했던 것이 ‘현지 이웃사랑과 나눔’ 프로젝트이다.

‘한국인의 이웃사랑의 풍습을 싱가포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던 나는 지난 몇 해 동안 한인교회의 음악인들과 함께 성탄음악회를 기획하여, 자선음악회를 기획하였다. 티켓 판매수익금은 현지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조성하여 싱가포르 사회복지 기관에 기증해오는 일들을 꾸준히 주선해왔다.

한국에서 싱가포르 미술전시회를 위해 온 작가들과 만남은 ‘성탄 자선미술전’을 기획하고 있던 나에게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다가왔다. “내년 성탄절에 만약 한국에서 누군가가 미술작품을 기증한다면 재소자 자녀들을 위한 전시회를 싱가포르에서 꼭 열고 싶어요”라는 나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 준 한국에서 온 작가와 필연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올해 4월에 한국에 방문한 길에 이번 기획하는 전시회의 취지를 설명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는 가운데 작가에서 갤러리 대표가 되어 23명의 작가와 성탄전시회를 추진한 ‘슬링스톤 갤러리’(이영신 대표)는 ‘성탄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자선전’에 참가할 작가들을 찾기 시작했다.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에 굳이 기증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물음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라 할지라도 어두운 부분과 소외계층은 항상 있게 마련이기에 평소에 필자가 지원하던 재소자 자녀를 위한 사회복지 단체인 싱가포르의 LCSS(Life Community Services Society)와 손을 잡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싱가포르의 명소인 플라톤 호텔의 헤리티지 갤러리에서는 우리의 취지에 대한 좋은 반응을 보이며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었다.

‘코리안스 러브 투 싱가포르인스’(Koreans’ Love to Singaporeans)라는 타이틀은 LCSS에서 부쳐준 것이다. 전시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 큐레이터(이영신) 한국에서 온 작가(한은애)



11월 8일 싱가포르 플라톤 호텔의 헤리티지 갤러리에서 열린 ‘성탄 자선미술전’에는 한국 작가의 24점의 작품이 걸렸다. 오프닝 행사에서는 시각장애인 소녀가 피아노 축하 연주를 펼쳤다.

와 자원봉사자(오원아) 현지 큐레이터(채혜미)이자 필자는 호우강(Hougang)에 위치한 LCSS 교육센터를 찾았다. 한국인의 사랑을 단지 작품기증만으로 보여 주기 전에 우리가 직접 만나서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지 손거울 만들기’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한 우리는 싱가포르의 소외된 어린이들과 만나게 되었다. ‘너희는 특별하고 귀한 존재란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완성된 손거울 속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만족스런 표정을 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었다.

드디어 11월 8일 오프닝에는 24점의 작품 기증식과 더불어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의 김완중 공사의 축사와 LCSS 대표인 모이팍의 환영사가 있었다.

한인과 싱가포르인이 함께 한 자리에서 서로가 돕고 격려해주면서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었던 그 자리가 감격으로 다가왔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었으며 이제 우리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기술과 재능으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공외교는 21세기의 아시아의 리더 국가로 부상하는 한국의 국력에 걸맞게 국경과 인종과 언어를 넘어 세계로 흘러나갈 기대하며 24점의 작품을 기증해 주신 한국의 작가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

한국-태국 우호문화축제로 방콕 ‘솔링’

현경숙(연합뉴스 방콕 특파원)

한국과 태국이 함께 연 체육행사와 한태우호문화축제가 11월 23일 방콕에서 태국인들의 호응 속에 성황을 이루었다.

재태국한인회는 이날 방콕 시내 쏘라 롱껀대학 대운동장에서 한국 교민 2천 500여 명, 태국인 2천500여 명 등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 체육대회는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태국인들과 우의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교민사회가 해외에서 5천여 명 규모의 체육대회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이 체육대회에는 한국 교민뿐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는 태국 대학생, 국제학교에 다니는 태국 초중고교생,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태국인 등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태국 대사관, 태국 진출 한국 기업, 한인 자영업체, 종교단체, 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했다.

대회에서는 축구, 육상경기, 줄다리기, 씨름, 제기차기 등 20여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으며, 치앙마이-푸껫-파타야 지역 대항전, 대사관 및 공공기관 대항전, 국제학교축제, 대학교축제 등도 열렸다.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서면 축사를 통해 “태국인들과 한국 교민들이 우정과 화합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한국과 태국의 친선 우호 관계가 발전하기를 기원했다.

전재만 주태국 대사는 축사에서 “한국과 태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55년이 됐고, 한국 교민이 태국에 정착한 지 60여 년이 됐다”며 “그간 우리 동포사회가 보여준 정과 화합을 굳히고, 태국민과 소통을 더 돈독히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언기 재태국한인회장은 “이번 행사가 한국 교민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일체감을 느끼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주위 이웃과 협조하고 우정을 돈독히 하는 한인 사회 구현에 한마음이 되



태국 방콕에서 11월 23일 한국 교민과 태국인 5천여 명이 참여하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는 한국 교민, 기업 주재원, 학생뿐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는 태국 대학생,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이 대거 참석해 양국 우의를 다졌다.

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태 수교 55주년을 기념해 ‘젊음, 미래의 열쇠’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태우호문화축제에서는 양국 문화 교류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선보였다. 또한 현지인과 한인 5천 명이 함께 한 체육행사도 열려 우정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콕 최대 변화가이자 대형 쇼펍몰인 센트럴월드 야외광장 무대에서는 다채로운 한-태 공연과 행사가 펼쳐졌다.

한국 측 공연으로는 조성모, K팝 그룹 ‘대국남아’ 등의 가수가 공연했으며, 태권도 시범,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의 합창, 부채춤, 국악 등이 선보였다.

또 한국 TV드라마 ‘폴하우스’의 태국판 리메이크 프로그램의 남녀 주인공들인 태국 톱스타 마이크와 엄이 한국관광홍보 명예대사로 위촉됐다.

태국 측 공연으로는 ‘차우더이’ ‘멍 타이’ 등 전통공연과 무에타이 쇼 등이 펼쳐졌다.

두 나라 정부 기관, 기업들의 협력으로 추진된 이번 한태우호문화축제는 24일까지 계속됐다. 24일에는 ‘한국 관광의 밤’, 댄스 배틀 결선, 청소년 포스터 경연대회 입상작 발표, 마술쇼 등이 열려 축제의 분위기를 이끌었다. **▶**

유럽 한인 차세대 ‘우리말 웅변’ 겨뤄

제3회 한국어 웅변대회에 36명 참가... 정체성 함양에 도움

유럽 한인 차세대들의 우리말 솜씨 경연 대회에서 폴란드의 권성현(11) 군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박종범·이하 유럽총연)가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폴란드 바르샤바 사운드 가든 호텔에서 개최한 제3회 유럽 한인 차세대 한국어 웅변대회에서 초등부의 권 군은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청중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해 대상인 외교부 장관상으로 부상과 함께 1천 500유로(약 216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또 각 부분별 최우수상(재외동포재단이사장 상, 상금 1천 유로)은 초등부에서 최세리(7, 스페인) 양, 다문화가정부 한 가브리엘 포라스 리(15, 스페인) 군, 중고등부 이정민(16, 스페인) 양이 각각 차지했다. 우수상은 초등부 이유정(오스트리아), 다문화가정부 김 에밀리(덴마크), 중고등부 원 폴리갑(이태리) 군이 차지하여 주폴란드대사상(상금 700 유로)을 수상했으며, 장려상은 초등부 박해운(폴란드), 다문화가정부 이보미(이태리), 중고등부 박세휘(스웨덴) 양이 차지해 재유럽한인총연합회장상과 함께 상금 500 유로를 받았다.

이 밖에 참가자들에게 격려상(재폴란드한인회장상)과 특별상(각 대학총장 및 하나은행장상)이 주어졌다. 이번 대회에는 13개국에서 36명의 연사들이 참가했으며 학부모, 유럽총연 임원진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재유럽한인총연합회 박종범 회장은 “해마다 유럽 지역의 한인 차세대들이 한국어 웅변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차세대들이 참가하고 내용면에서도 더욱 알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영선 주폴란드대사는 축사에서 “해외에 살면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소중히 가꾸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말을 사랑하고 가꾸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총연 주최의 제2회 유럽한인 청소년 한글 글짓기대회



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박종범·이하 유럽총연)가 지난 11월 8일부터 사흘 동안 폴란드 바르샤바 사운드 가든 호텔에서 개최한 제3회 유럽 한인 차세대 한국어 웅변대회에는 36명의 연사가 참석해 폴란드에서 온 권성현 군이 대상을 차지했다.

에서 영예의 대상인 신사임당상은 프랑스 파리 한글학교 최영재(중고등부) 군이 차지했다. 금상인 세종대왕상은 초등부의 경우 정주영(영국 북동부 한글학교) 군이, 중고등부의 경우 최성환(영국 런던 한글학교) 군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한글 글짓기 심사는 재유럽한인총연합회의 의뢰를 받아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원장 박창수 교수)이 맡았다. 각 부분별 수상자는 ▲올곡 이이상 : 마빈 라이스물러(초등부, 함부르크 한글학교), 김윤희(초등부, 브라티슬라바 한글학교), 오하영(중고등부, 영국 코벤트리 한글학교), 김리지(중고등부, 프랑스 파리 한글학교) ▲퇴계 이황상 : 한서영(초등부, 영국 런던 한글학교), 김마리(초등부, 프랑스 파리 한글학교), 권시은(중고등부, 이태리 밀라노 한글학교), 김영은(중고등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한글학교) ▲이순신장군상 : 정태오(초등부, 스페인발렌시아 한글학교), 김관우(초등부, 프랑스 파리 한글학교), 김민(초등부, 스페인 라스 팔마스 한글학교), 박지호(중고등부, 이탈리아 밀라노 한글학교), 석사론(중고등부, 독일 쾰른 한국학교), 김여은(중고등부, 이탈리아 밀라노 한글학교 등 모두 17명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신사임당상 500유로, 세종대왕상 400유로, 올곡 이이상 300유로, 퇴계 이황상 200유로, 이순신장군상 100유로)이 수여됐다. **장**



아버님 전상서

박원규(과테말라)

2013년 동포문학상 시부문 대상



아버님

9월이 오면 과테에도 감이 나옵니다.

한 친구가 산 루카스 산속에서 가을을 걷어와 감으로 내 팝니다.

며칠 전 가게 귀퉁이에 쌓아놓은 감 몇 개를 골라보니 아직은 나무의 힘이 남아있는 선감이었지만 사람들은 덜 익은 감을 사간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감을 팔면서 아직 가을이 깊지 않았으니 여름 폭지가 떨어질 때까지 며칠 더 가을을 익혀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참 이상한 감장사입니다.

조금 속고 속이는 감칠맛이 없어 밋밋하지만, 이것이 익은 감을 파는 장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을 며칠 일찍 팔았지만 사가는 사람은 며칠 묵혀가면서 익어갑니다. 그러니 감을 살 때 너무 익은 감을 사면 손해를 봅니다. 팔 때도 비슷하겠지요.

아버님

저도 그 감밭에 가보았습니다.

아침 이마는 차갑고 겹혀해 지더군요.

산비탈에 사는 감나무는 한편으로 몸을 기울여야 가지가 퍼지고 큰 감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당한 거리가 좁혀져 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욕심에는 가지치기가 없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큰 감부터 따낸 것인지 익은 감부터 따낸 것인지 궁금했지만 낮은 가지에 열린 감부터 따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감은 높은 가지에 많이 달려있었습니다.

과수원 지기에게 물었지요.

감나무는 몇 그루며 얼마나 오래됐는지...

과수원 지기는 모르더군요. 감나무를 심은 사람과 감을 따는 사람과 감을 사는 사람이 다 다르니 서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감밭에 가 감을 따면서 저도 어느덧 그때의 아버님 나이쯤 된 것 같습니다. 속은 덜 탔지만 빛깔은 익었습니다.

귀에서 북이 울리고 가슴에서 징징 소리가 납니다. 하루 종일 감처럼 매달려 있어도 답답하지 않고 아침보다 저녁이면 더 빈손이 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편안하고 비탈에 서 있어서인지 허리를 세우면 여기저기가 아파옵니다. 누구면 누구에게 기대어 있는 것처럼 미안합니다. 믿음은 기름종이처럼 뽀뽀하여 밀어내는 중이고 무슨 곡절이 그리 많은지 그때마다 인습을 배우는 것이 힘이 듭니다. 웃고 우는 것이 끝끝내 이 세상을 놓지 않는 방법처럼 고집스럽습니다.

이러니 어찌 하겠습니까.

9월 나무에서 따온 감을 바구니에 쌓아두고 가을을 익히는 친구처럼 누군가가 저를 따 가을 바구니에 쌓아두고 여름을 익혀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계절입니다.

가방 하나 달랑 매고 감성여행 포천

감성 여행지, 산정호수 평강식물원

경기도 포천은 수도권에서 손에 꼽히는 산책하는 여행지이다. 북서쪽으로는 한탄강이 지나고, 북동쪽에는 산정호수와 백운계곡이, 남쪽에는 국립수목원이 자리한다. 갈비와 막걸리로 배를 채우고 온천수에 몸을 담가 피로를 풀 수도 있다.

포천 10번 버스는 여행에 이용하기 좋다. 포천 여행 명소인 산정호수를 출발해 평강식물원과 한과문화박물관이 있는 한가원, '타일랜드군 참전 기념비', 38선 휴계소를

지나고 포천 시내를 관통한다.

'산정(山井)'이란 이름도 산 정상에 있는 호수란 의미가 아니라 산속에 있는 우물처럼 맑은 호수란 뜻에서 붙었다.

호숫가로 다가가자 다양한 모양의 조형물이 드문드문 서 있고, 아름다리나무와 초록빛 호수가 맑은 풍경을 그려내고 있었다. 산책로에 들어서자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가 옆으로 펼쳐졌다. 산책로는 호수를 한 바퀴 돌 수 있게 설계돼 있다. 커다란 나무가 하늘을 가릴 듯 서 있기도 하고, 물 위에 떠 출렁이는 나무 데크가 호수를 가르기도 한다.



김일성 별장

햇살이 쏟아지는 산정호수에서 풍광을 감상하는 관광객들. 호수 옆의 망봉은 궁예가 이곳에 올라 적의 동정을 살피고 봉화를 올리게 했다고 전해진다.

산정호수 상동주차장에서 세 정거장 떨어진 평강식물원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약 59만m² 규모에 12가지 주제로 정원을 조성한 식물원으로 최근 경기도가 추천하는 명소 12곳 중 하나로 선정됐다.

식물원으로 들어서자 예쁘게 꾸며진 정원을 한가롭게 거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인공적으로 꾸며 놓았지만 개장한 지 7년이 지나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암석원을 비롯해 고층습지, 고산습원, 들꽃동산, 연못정원, 습지원, 이끼원, 만병초원, 고사리원, 자생식물원 등 주제별로 정원이 마련돼 있어 눈이 지루할 겨를이 없다. 또 푸른 잔디가 깔린 넓은 잔디광장에서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포천아트밸리, 화강암 절벽에 공연장... 한과 박물관도

포천아트밸리는 국내 최초로 폐채석장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연간 30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된 곳이다.

우선 돌문화 전시관에서는 포천아트밸리의 조성 과정과 화강암의 특성을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이후 원적외선이 나오는 400m 길이의 건강 오름길을 오르면 대공연장과 천주호에 닿는다.

대공연장은 높이 40m의 화강암 절벽을 마주하며 설계됐는데 4~10월이면 주말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천주호는 화강암을 채석하며 파들어 갔던 웅덩이에 샘물과 빗물이 유입돼 형성된 호수로 지금은 가재, 도롱뇽, 버들치가 살고 있는 1급수가 됐다.

산정호수 '한화콘도' 정류소에서 시내 방향으로 두 정거장인 '산정리3교 다리 앞' 정류소에 내려 5분 정도를 걸으면 한가원 한과문화박물관에 닿는다.

박물관 1층에는 한과의 역사와 원재료, 제작 과정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이 있고 약과, 유과, 매작과, 정과, 다식, 강정 등 다양한 한과들이 전시돼 있다. 또 2층에는 계절에 따



포천아트밸리의 천주호는 물빛이 짙어지면 절벽과 어우러져 관광객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른 한과, 전통차와 한과, 한과와 세계 과자, 한과 명인 등을 주제로 하는 각종 전시물과 한과 제작 도구가 진열돼 있다.

10번 버스를 타고 '문암삼거리' 정류소에서 내려 100여m를 거슬러 가면 '타일랜드군 참전 기념비'가 자리한다. 태국군의 한국 전쟁 참전을 기념하고, 태국군 1천296명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비석으로, 태국군의 마지막 주둔지였던 곳에 세워졌다.

높이 12m의 기념비에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타일랜드의 육·해·공군 용사들! 여기 그들의 마지막 주둔지에 피 흘린 1천 296명의 뜻을 길이 새긴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 기념비 옆으로는 불상을 모신 태국식 사원 건축물도 있어 사뭇 이국적이다. **창**

- 1 평강식물원은 약 59만m² 규모에 12가지 주제로 정원을 조성한 식물원으로 경기도가 추천하는 명소다.
- 2 '타일랜드군 참전 기념비'는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태국군 1천296명을 기리는 기념비로 태국식 사원도 있어 한번쯤 둘러볼 만하다.
- 3 한가원 한과문화박물관에서는 다양한 한과와 제작 도구를 볼 수 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독자후기 _ 송장우(대구) 동북아문화교류협회

매월 받아보는 ‘재외동포의 창’을 통해 동포사회의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와 모국의 연결고리인 재외동포재단이 동포사

회를 지원하고 국내에 알리는 활동을 재외동포의 창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포사회 생생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한인 사회의 다양한 소식(한인회, 상공회, 한글학교 행사 등)과 이민의 애환이나 널리 알리고픈 미담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해서 고국과 전 세계 한인사회에 전하겠

습니다.

자랑할 만 한 소식, 미담, 성공적인 행사 등 이모저모를 전해주세요.

※ 원고 보낼 곳(원고 A4 한 장 이내) :

wakaru@yna.co.kr / shaorong@okf.or.kr



기대감...

행복도시
시공간

대한민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가 대한민국의 명품도시로 발돋움하는 날을,
여러분의 기대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아스포라 희망의 새 시대로!

지구촌 17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720만 세계한인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